

	중국(상하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전택규 소장
		일시	2025. 5.

CEPA Insight

- 中, 미국 트럼프 104% 관세 맞불..."모든 미국상품에 추가관세 84%"
-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 서울시 열려
- 무비자 호재로 한중 관광 열기 "후끈"... 양국 국민 거리 좁혀져
-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2024년 상하이시 경제 실적

■ 中, 미국 트럼프 104% 관세 맞불..."모든 미국상품에 추가관세 8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104%의 '관세 폭탄'을 위협하자 중국도 4월 9일 즉각 '전방위 비례 대응 보복'에 나섰다.
- 지난 4월 2~3월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미국 특정 상품·기업 '표적보복 맞불 관세'에 집중하며 전면전 확대를 자제했던 중국은 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34% 상호관세를 꺼내던 때부터 동일한 수준의 보복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50% 더 높이자 똑같이 50%를 인상, 트럼프 2기 출범 후 누적 추가분만 놓고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 간 최대 관세율은 104%의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국무원은 "8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상호관세 세율을 34%에서 84%로 높였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처사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을 기초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모든 일방적 대중국 관세 조치를 철폐하며 중국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로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9172551009?input=1195m>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설명회 서울시 열려

- 왕즈린(王治林)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설명회에 참석해 중국과 한국의 산업·공급망이 깊이있게 융합돼 있다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협력 구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CISCE는 중국이 만든 중요한 국제 공공재로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장을 제공하며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국 측 상공업계 인사는 한중 경제가 높은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고 한국 기업이 반도체, 신에너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산업에서 중국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ISCE는 한국 기업이 국제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참여하는 데에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중 기업은 CISCE를 통해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안정적으로 오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행사에는 중한 양국 무역·투자 촉진 기구, 상공회의소 및 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국제전람센터그룹은 온라인으로 '제3회 CISCE'를 홍보했으며 주한 사무소는 한국 기업과 참가 의향서를 체결했고 중국공산은행 서울지점과 '제3회 CISCE' 홍보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3549032787736965&wfr=spider&for=pc>

■ 무비자 호재로 한중 관광 열기 "후끈"... 양국 국민 거리 좁혀져

-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环球网)이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로 한중 관광 열기가 빠르게 상승해 양국 국민 간 거리가 좁혀졌다면서 한중 간 관광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 신문은 한국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4만 5,000여 편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 같은 기간 양국 간 승객 이동량은 전년 대비 30% 급증한 572만 명에 달해 양국 간 관광 수요가 크게 회복했음을 반영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 실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12만 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1.8% 급증했다. 이는 비록 코로나19 이전의 월평균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증가율은 가파른 곡선을 나타냈다.

- 이 같은 추세는 관광 시장과 항공 업계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한항공은 올해 여름 방학 시즌 중국 노선을 주 195편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시켰다. 아시아나와 제주항공도 충칭, 청두, 시안 등 도시 직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으며 티웨이 항공도 최근 한국 청주, 대구에서 중국 옌지로 향하는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1분기 인천공항 이용 승객이 약 1,740만 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항공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비중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1일 서울 인사동 부근의 한 호텔 투숙객 가운데 60%는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해당 호텔 직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인 투숙객 비중은 전체 예약량의 5%에 불과했지만, 호텔이 마케팅 전략을 중국 관광 플랫폼에 집중하면서 최근 중국인 예약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 한국 정부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카지노, 호텔, 면세점 등 관광업계 더욱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은 한국 내수 진작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복잡한 정세에서 한중 양국의 민간 교류와 이해를 증진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양국 관계에도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2024년 상하이시 경제 실적

<2024년 상하이 주요성과 및 2025년 목표>

구분	2024년		2025년 목표
	목표	성과	
GDP	5% 증가	5% 증가	약 5% 증가
일반 공공예산 수입	5% 증가	0.7% 증가	2% 증가
연구개발 비용 GDP중 비중	4.5%	4.4%	약 4.5%
신규 다국적기업 지역본/R&D센터 설립수	다국적 기업 50개 이상	60개/30개	60개
신규 일자리 수	55만명 이상	62.2만명 증가	약 60만 명 증가 (신규 취업자 수)
도시 실업률	5% 이내	4.2%	5% 이내
1인당 가처분 소득	GDP와 유사 (5% 증가)	4.2% 증가	GDP와 유사 (5% 증가)
주민소비가격	3% 상승	0.3% 상승	약 2% 상승

○ **[GDP]** : 2024년 상하이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상하이 GDP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하이 GDP는 5조392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 성장을 거두며 목표를 달성했다. 최근 몇 년간 상하이 GDP는 2017년 3조 위안, 2020년 4조 위안, 2023년 5조 위안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년과 같이 GDP 5%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 **[산업]** : 2024년 상하이 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99.7억 위안으로 0.9% 감소했고, 제2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1조1638억 위안으로 2.4% 증가했으며, 제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4조2,189억 위안으로 5.7% 증가했다. 그중 교통운송, 창고 및 우편업이 19.2%,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이 12.9%로 모두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했다. 상하이시의 산업 생산액 데이터를 보면, △집적회로 △AI △바이오의약으로 구성된 3대 선도산업이 성장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소비]** : 2024년 상하이 1인당 가처분소득은 8만8,366위안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반면, 1인당 소비액은 5만2,722위안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2024년 상하이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1조7,94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하락했지만, 전국 도시 중 1위를 유지했다. 그중 소매판매 총액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 소매액은 2.9% 하락했으며, 숙박 및 요식업 소매액은 5.4% 하락했다.
- **[수출입]**: 2024년 상하이시의 수출입 총액은 4조2,700억 위안으로 2023년 대비 1.3% 증가했다. 그중 수출은 1조8,200억 위안으로 4.6% 증가했고, 수입은 2조 4,500억 위안으로 1% 감소했다. 2024년 상하이 3대 무역 파트너는 유럽, 아세안국가, 미국으로 상하이 수출입 총액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아세안국가 수출입은 6.9% 증가한 반면, 유럽, 미국은 각각 4.8%, 0.2% 감소했다. 2024년 중동,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수출입은 각각 13.9%, 23.7%, 13.9% 성장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 **[투자유치]**: 2024년 상하이시 *실제 외자 이용액은 1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6% 감소했으며, 신규 법인설립 수는 5,956개로 전년 대비 1.0% 하락했다.